

특집

신임교수 워크숍의 의미와 방향

기획의 말

좌담: 신임교수 워크숍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기획의 말

특집

교수는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거나 새로운 교수 방법 이론을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what to teach)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how to teach)에 대해서는 종종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같은 교수 방법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된 데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강의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다양한 교수 방법과 교수 전략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이고 구태의연한 방법이 적용되어왔고 이것이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신임교수들이 교수 방법과 전략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상태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학생들과 만나게 되면 이는 큰 긴장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상황은 수업 진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신임교수 워크숍을 통해 신임교수의 대학에 대한 적응을 돋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2005년 2학기부터 신임교수 워크숍을 강화하여 모든 신임교수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교육 워크숍에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교무처가 주관하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신임교수 교육 워크숍은, 앞으로도 이전보다 교

육 부분이 강화된 형태로 진행되어 신임교수들의 효과적인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06년 2월 3일 신임교수 워크숍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신임교수 워크숍의 내용과 진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호 특집은 신임교수 워크숍 개선을 위한 좌담회 내용을 살고, 최근의 신임교수 워크숍 강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5